

# 한국어에 나타나는 ‘진실’ 표현 어휘의 담화표지 기능 연구\*

김태호 · 정선영  
(부산대학교)

## 1. 서론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인간 언어는 이러한 목적, 즉 화자와 청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의 발화가 가지는 명제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grammatical competence)도 필요하지만, 발화가 일어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화자의 발화가 명제 의미 이외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communicative competence)도 필요하다(Mey 1994).

Grice(1975:45)는 담화(discourse; talk exchange)를 화자와 청자 사이의 협력적인 노력이라고 보고, 담화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청자는 이를 해석한다고 하였다. 즉, 담화는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는 행위이고, 화자는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청자는 화자의 의사

---

\* 본 논문의 심사를 통하여 논문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매우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자 3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김태호: 주저자, 정선영: 공동저자

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는 점에서 담화를 대화자 사이의 협력적인 노력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통해 설명하였다. Grice(1975)는 협력원리의 하위 개념으로 4가지 격률을 제안하였는데, 이 4가지 원리는 각각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계의 격률, 그리고 방법의 격률이다. 이 4가지 격률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 성공적인 대화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되,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 사실임을 입증할 정보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 (다)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 발화 상황이나 내용과 관련된 정보만 제공한다.
- (라)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 불분명한 태도를 피하고, 명료한 태도로 대화에 참여하라.

Grice(1975)의 협력원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위에 제시한 4가지 대화의 격률을 위반하지 않고 잘 지키면서 대화에 참여한다. 즉, 화자는 위 4가지 대화의 격률에 입각하여 발화를 생성하고, 청자는 화자가 이 4가지 대화의 격률에 따라 발화를 생성한다는 가정 하에 화자의 발화를 해석한다. 하지만 화자의 모든 발화가 이 4가지 대화의 격률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화자가 의도적으로 이 4가지 대화의 격률을 위반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 경우 청자는 화자의 의도, 즉 화자의 발화에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sup>1)</sup>

Grice(1975)의 협력원리, 특히 ‘질의 격률’에 의하면 청자는 화자의 발화가 진실(truth)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화자의 발화를 해석한다. 이러한 대화의 원리에 기반하여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

1)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라고 하고, 화자의 함축 의미에 대한 청자의 해석을 추론(inference)이라고 하는데, 화자의 청자 사이의 대화는 함축과 추론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진행된다(Mey 1994 참조).

- (1) 참고 또 참으면서 나는 **참말로** 한다고 했다.
- (2) 소감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을 뿐, 전 **진짜** 열심히 읽었다고요.

예문 (1)과 (2)에 각각 사용된 ‘참말로’와 ‘진짜’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가 진실이라는 것을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rice(1975)의 협력원리 중 ‘질의 격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청자는 화자의 발화가 진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화자의 발화를 해석한다. 청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한다면, 화자는 왜 자신의 발화가 진실이라는 것을 청자에게 확인시켜야 하는가? 또, 위 예시와 같이 ‘참말로’나 ‘진짜’와 같은 ‘진실’ 관련 의미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발화의 내용은 전부 진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인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와 청자 모두 Grice(1975)의 협력원리, 특히 질의 격률을 준수하면서 서로 협력한다고 가정할 때, 이 두 가지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Grice(1975)의 협력원리가 잘 지켜질 것이라고 가정할 때, 분명 ‘참말로’나 ‘진짜’와 같이 ‘진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명제의 진리값과는 상관없는 의미를 전달하거나 어떤 특정 담화·화용적 기능을 위해 화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담화표지(discourse particle; discourse marker)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말로’와 ‘진짜’와 같이 본래 ‘진실’의 명제 의미를 가지는 명사나 부사로만 사용되던 한국어 ‘진실’ 표현 어휘들이 화자의 발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할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한국어 구어 말풍치(spoken corpora)에 나타나는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진실’ 표현 어휘가 원래의 명사나 부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담화·화용적 기능, 예를 들면 화자의 발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것을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담화표지의 정의와 선행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진실’ 표현 어휘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겠다. 4장

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5가지 종류의 ‘진실’ 표현 어휘들을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진실’ 담화표지의 문장 내 이동제약에 관하여 살펴볼도록 하겠다. 5장에서는 ‘진실’ 표현 어휘들을 주로 사용되는 5가지의 담화·화용적 기능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6장에서는 왜 ‘진실’ 표현 어휘들이 ‘강조’와 같은 담화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되게 되었는지를 문법화 과정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의 의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치도록 하겠다.

## 2. 담화표지의 정의와 선행 연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은 언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화자와 청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인간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와 청자간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표현이 가지는 명제적 의미에 대한 이해(grammatical competence)는 물론이고, 언어가 사용되는 실제 담화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같은 언어 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도 필요하다. 화자가 사용하는 담화표지는 대화 참여자간의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기능으로 사용되는데,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화자가 사용하는 담화표지의 담화·화용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많은 학자들이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담화표지를 정의하였고, 담화표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에 대해 조사하였다(강우원 2000, 이한규 1996, 임규홍 1996, 1998, Kim 2009, Schiffrin 1987 참조).

이한규(1996)는 담화표지를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자가 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장 또는 발화가 가지는 근본적인 명제 의미 또는 진리 조건적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화자의 믿음, 전제 또는 태도 등을 보여주는 언어적 형태로 정의하였다. 임규홍

(1998)은 담화표지를 담화상에서 문장의 명제적 의미보다는 화자의 태도나 대화전략(conversational strategy)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향화(2011)는 담화표지를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자의 담화전략이라고 하였고, 전영옥(2002)은 기존의 의미 또는 기능과는 별도로 새로운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는 달리 Schiffrin(1987)은 담화표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요소로써 발화의 단위를 묶어주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담화표지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담화표지가 문장이나 발화의 명제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발화자의 태도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이다.

전통문법가들은 담화표지를 주로 감탄사나 부사의 문법 범주로 분류해 왔지만, 1980년 이후 담화표지의 담화·화용적 기능에 관심을 가진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들에 의해 담화표지가 언어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담화표지'의 연구 영역이 담화표지의 '기능, 형태, 사용 환경, 그리고 현상' 중심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었다(임규홍 1996 참조). 한국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도 담화표지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예를 들면, 임규홍(1998)은 담화표지를 크게 어휘적 담화표지(lexical discourse marker)와 비어휘적 담화표지(non-lexical discourse marker)로 구분하여 범주화하고, 어휘적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김향화(2001)는 다양한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담화표지의 개별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순자·이필영(2005)은 연령에 따른 담화표지의 유형별 특징을 조사하여, 어느 시기에 어떤 유형의 담화표지가 습득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진실' 표현 어휘가 실제 담화에서 본래의 진리조건적 명제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 이외의 목적, 즉 담화표지로 자주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진실' 표현 어휘가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제법 많이 진행되었다(강우원 2000, 김영철 2007, 임규홍 1998 참조). 예로, 강우원(2000)은 여러 가지 품사로, 특히 부사로 사용되는 '참'과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참’을 구분하여 각각이 가지는 언어적 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임규홍(1998)은 다양한 ‘진실’ 표현 어휘를 ‘정말’류로 지칭하고, ‘정말’류로 분류되는 어휘들의 담화·화용적 기능을 조사하였다. 담화표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영어에서도 매우 높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오래 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chiffrin 1987 참조).

이처럼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담화표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진실’ 표현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도 꽤 이루어졌다. 하지만 ‘진실’ 표현 어휘들이 모두 다 담화표지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실’ 표현 어휘들이 모두 다 같은 기능의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3)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오래되다 보니, 정신과 약이나 먹었는데, 치료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죠.

앞에 제시된 (1)과 (2)의 경우와는 달리 위 예문 (3)에 사용된 ‘(사)실’은 원래의 명제 의미, 즉 참과 거짓의 판별이 가능한 진리 조건 의미로만 사용되었고, 화자의 특정 의도가 포함된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진실’ 표현 어휘들이 전부 다 항상 담화표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실’ 표현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전부 다 똑같은 담화·화용적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거나 거의 진행된 것이 없어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어 ‘진실’ 표현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제법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실’ 표현 어휘가 화자의 특정 목적을 위한 담화표지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즉, 원래는 명사나 부사의 문법 기능을 가지던 표현들이 문법화 과정을 통해 화자가 의도한 담화전략을 수행하는 담화표지라는 새로운 문법 기능을 가지게 된다.<sup>2)</sup> 다양한 한국어 ‘진실’ 표현 어휘들의 문법화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2) 문법화는 어떤 특정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것보다 더 문법적인 것으로

각각의 어휘들이 거치게 되는 문법화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또한, ‘진실’ 표현 어휘들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도 문장의 처음, 중간, 끝으로 다양하지만,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담화기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진실’ 표현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뭉치에 나타나는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이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 3. ‘진실’ 표현 어휘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한국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진실’ 표현 어휘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표현의 유형, 나타나는 위치, 그리고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 및 분석되었다.

먼저 한국어에 나타나는 ‘진실’ 표현 어휘들은 다양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진실’ 표현 어휘 5가지를 “꼬꼬마 세종 말뭉치” 구어 자료를 통해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5가지 형태의 ‘진실’ 표현 어휘들은 ‘사실’, ‘솔직’, ‘정말’, ‘진짜’, 그리고 ‘참’의 형태를 취하는 표현들이다.<sup>3)4)</sup>

본 연구의 목적인 ‘진실’ 담화표지의 담화기능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 ‘진실’ 표현 어휘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한국어

---

변화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특히, ‘문법화’라는 용어는 어휘나 구문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원래 없던 문법 기능으로 사용되게 되는지, 혹은 하나의 문법기능을 하던 요소들이 또 다른 새로운 문법기능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Hopper and Traugott 2003:1-2).

- 3) ‘실’은 ‘사실’과 원래 의미가 같고, 형태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사실’의 형태를 취하는 ‘진실’ 표현 어휘의 예로 포함하였다.
- 4) ‘진실’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에 나타나는 ‘진실’ 표현 어휘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 말뭉치를 통해 쓰임을 조사한 어휘는 크게 ‘사실’, ‘솔직’, ‘정말’, ‘진짜’, 그리고 ‘참’의 5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표현들이다.<sup>5)</sup> 본 연구에 사용된 이 5가지 종류의 ‘진실’ 표현 어휘들의 명제 의미를 사전적 정의에 따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연세한국어사전 1998 참조).

- (가)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
- (나) 솔직: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김이 없음
- (다) 정말: 거짓이 아닌 바른 말
- (라) 진짜: 거짓이 아닌 원래 생긴 그대로의 것
- (마) 참: 사실이나 진리에 어긋남이 없음.

위에 제시한 5가지 종류의 표현들이 원래 가지는 명제 의미는 동일하거나 서로 비슷하지만 이 표현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담화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강조’를 나타내는 담화표지로만 사용되는 ‘진실’ 표현 어휘가 있는 반면에 ‘인정’이나 ‘주저함’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로도 사용되는 ‘진실’ 표현 어휘들도 있다. 그러나 ‘진실’ 표현 어휘가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위에 제시한 5가지 ‘진실’ 표현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각각 어떠한 담화·화용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를 “꼬꼬마 세종말뭉치” 자료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위 5가지 종류의 ‘진실’ 표현 어휘들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진실’ 표현 어휘들은 모두 원래 ‘진실’이라는 명제 의미를 가지는 명사였지만, 부사 또는

5) 여기 제시된 5가지 종류의 ‘진실’ 표현 어휘들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 5가지 종류의 어휘만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본 논문에서 ‘진실’ 표현 어휘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한 것은 각 유형의 ‘진실’ 담화표지가 각기 다른 담화기능으로 사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본 연구에 사용된 ‘진실’ 표현 어휘들이 형태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의 편의상 형태적으로 유사한 ‘진실’ 표현 어휘들을 함께 묶어 조사한 것이다.

감탄사로 바뀌면서 본래의 기능이외의 용도인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실' 표현 어휘들의 담화표지 기능에 대한 연구이므로 위 5가지 표현들이 명사로 사용된 경우는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래의 명제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화자의 특정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만 조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위 5가지 '진실' 표현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된 경우를 “꼬꼬마 세종말뭉치” 프로젝트의 구어자료를 통해 검색하고, 각 경우에 해당되는 용례(concordance)를 검색된 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각각 50개씩 추출하여 분석한 후, 각 '진실' 표현 어휘들의 담화표지 기능을 살펴보았다.<sup>6)7)</sup>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담화 연결 기능이 강한 담화표지는 주로 문장 시작 부분에 나타나고 문장 중간이나 끝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한규 1996 참조)을 확인하고, 또 '진실' 표현 어휘의 담화표지의 기능이 담화표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진실' 담화표지 용례를 나타내는 위치에 따라 '문장 시작, 문장 중간', 그리고 '문장 끝'의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각 '진실' 표현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어떠한 담화·화용적 기능을 가지는지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추출된 250개 '진실' 담화표지 용례를 기능적 특징에 따라 각각 분류하였다. 각 용례의 담화·화용적 기능에 대한 판단은 3명의 언어학 및 국어학 전공자인 한국어 화자를 통해 진행하였고, '진실' 담화표지가 하는 기능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한국어 화자 간 차이를 보이는 용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진실' 표현 어휘들이 사용되는 위치와 담화기능에 있어서 서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6) 꼬꼬마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IDS(Intelligent Data Systems) 연구실에서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모듈 및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한 과제로 '세종말뭉치 활용 시스템'과 '형태소 분석기'로 구분된다. 꼬꼬마 프로젝트를 통해 워드스미스(WordSmith)와 같은 콘코던스(concordance)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웹상에서 “21세기 세종계획 세종말뭉치” 구어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http://kkma.snu.ac.kr> 참조).

7) 용례가 많이 검색되는 경우에는 매 20번째에 나타나는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용례가 적게 검색된 경우에는 다른 용례의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적인 비율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 4. 위치에 따른 ‘진실’ 담화표지 분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담화 연결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는 주로 문장 시작 위치에서 나타나지만, 문장 중간이나 끝에서는 담화 연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 중간이나 끝에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이한규 1996, 임규홍 1998 참조). 이러한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총 250개의 ‘진실’ 담화표지를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문장 시작, 문장 중간, 그리고 문장 끝에 나타나는 3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진실’ 표현 어휘들이 문장 시작, 중간, 그리고 끝에 나타나 담화표지로 사용된 경우를 각각 보여주는 예이다.

- (4) **솔직히** 내가 번다고 생각하면,...
- (5) 네놈들이 **진짜** 죽일 놈들이야!
- (6) 사랑했어요, **정말로**.

예문 (4)에서는 ‘진실’ 표현 어휘인 ‘솔직히’가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하여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화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담화표지로 사용된 경우이고, 예문 (5)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진실’ 표현 어휘인 ‘진짜’가 문장 중간에 나타나 술어부, 즉 ‘죽일 놈들이야’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의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 예문 (6)은 ‘진실’ 표현 어휘 ‘정말로’가 앞에 쓰인 ‘사랑했어요’의 명제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의 담화표지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진실’ 표현 어휘들은 문장 시작, 중간, 그리고 끝 부분에 나타나는데, 아래 표1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5가지 형태의 ‘진실’ 담화표지가 나타나는 위치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sup>8)</sup>

8) 익명의 심사자 한분은 ‘진실’ 표현 어휘의 기능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사로서의 기능, 즉 문장수식 부사(linking or sentence adverbs)와 상태 부사(manner adverbs)가 각각 나타나는 위치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문장수식 부사와 상태 부사의 구분은 ‘진실’ 표현 어휘가 담화표지로 사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른 담화표지 기능

	문장 시작	문장 중간	문장 끝	합계
'사실'	23(46%)	21(42%)	6(12%)	50
'솔직'	31(62%)	12(24%)	7(14%)	50
'정말'	26(52%)	19(38%)	5(10%)	50
'진짜'	25(50%)	18(36%)	7(14%)	50
'참'	20(40%)	29(58%)	1(2%)	50
합계	125(50%)	99(40%)	26(10%)	250

표 1. 나타나는 위치에 따른 '진실' 담화표지 분류

위에 제시된 표1에 따르면 본 연구에 사용된 총 250개의 '진실' 담화표지 중 125개 또는 50%의 '진실' 담화표지가 문장이 시작되는 곳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담화 연결 기능의 담화표지는 문장 시작 부분에 주로 나타난다는 이한규(1996)의 주장에 따르면 문장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진실' 담화표지는 '강조'와 같은 담화기능 외에도 문장과 문장 혹은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담화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 반면, '진실' 담화표지가 문장 시작 부분뿐만 아니라 문장 중간에 사용된 경우도 99개 또는 40%나 되어 담화 연결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가 문장 중간이나 끝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임규홍 1998 참조). 따라서 담화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진실' 담화표지는 전반적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 또는 문장 중간 지점에 주로 나타나고, 문장 끝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표1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른 4가지 유형의 '진실' 담화표지와는 달리 '참'의 형태를 취하는 '진실' 담화표지는 문장 시작 부분 보다는 오히려 문장 중간에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문장 끝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장 끝에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은 다른 '진실' 담화표지와 동일하지만, 문장 시작 지점보다 중간 지점에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한 가지 현상만으로는 ‘참’의 형태를 취하는 ‘진실’ 담화표지가 다른 종류의 ‘진실’ 담화표지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부사 또는 감탄사로 분류되는 ‘참’의 원래의 문법적 특징이나 기능이 다른 4가지 유형의 ‘진실’ 담화표지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5가지 유형의 ‘진실’ 표현 어휘들의 문장 내에서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동제약에 있어서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진실’ 표현 어휘들이 문장 내에서 이동의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 (7) ㄱ. 빨래 너는 건 **진짜** 죽어도 못 하겠다.  
 ㄴ. **진짜** 빨래 너는 건 죽어도 못 하겠다.  
 ㄷ. \*빨래 **진짜** 너는 건 죽어도 못 하겠다.  
 ㄹ. 빨래 너는 건 죽어도 **진짜** 못 하겠다.<sup>9)</sup>  
 ㅁ. \*빨래 너는 건 죽어도 못 **진짜** 하겠다.  
 ㅂ. ?빨래 너는 건 죽어도 못 하겠다, **진짜**.

위 예문(7)에 제시된 예시를 통해 ‘진실’ 담화표지인 ‘진짜’가 문장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치의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진실’ 표현 어휘인 ‘진짜’가 원래의 기능 이외의 기능을 가지는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문장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 제약이 있어, (7ㄱ), (7ㄴ) 또는 (7ㄹ)과 같이 절이 시작되는 위치로는 이동이 자유롭지만 절의 중간이나 끝으로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아 담화연결의 기능을 가지는 담화표지로는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화표지의 이러한 이동의 제약은 담화표지가 주로 절이 시작되는 위치에 나타난다는 담화표지의 일반적인 특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9) (7ㄹ)을 ‘빨래 널다’, ‘죽다’, 그리고 ‘못 하겠다’의 3개의 절로 구분하지 않고, ‘빨래 널다’와 ‘죽어도 못하겠다’의 2개의 절로 분석하면 (7ㄹ)은 비문법적이거나 매우 어색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10)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진실’ 표현 어휘 자료를 통해 ‘진실’ 표현

## 5. 기능에 따른 '진실' 담화표지 분류

본 연구에서는 이전 장에서 제시한 5가지 종류의 '진실' 담화표지를 주로 사용되는 담화·화용적 기능에 따라 총 5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 표2에 제시하였다.

	강조	주의집중	주저함	놀람	인정	합계
'사실'	29(58%)	18(36%)	3(6%)	0	0	50
'솔직'	30(60%)	12(24%)	3(6%)	0	5(10%)	50
'정말'	41(82%)	6(12%)	0	3(6%)	0	50
'진짜'	35(70%)	10(20%)	2(4%)	3(6%)	0	50
'참'	20(40%)	29(58%)	0	0	1(2%)	50
합계	155(62%)	75(30%)	8(4%)	6(2%)	6(2%)	250

표 2. 기능에 따른 담화표지 분류

위에 제시된 표2에 따르면 '진실' 표현 어휘들은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주로 '강조'와 '주의집중'의 담화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표2에 제시된 5가지 유형의 '진실' 담화표지가 실제 한국어 담화 상에서 어떠한 담화·화용적 기능으로 사용되는지 세종말뭉치 구어자료에서 추출한 250개의 용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위 5가지 종류의 '진실' 표현 어휘가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와 담화표지라는 새로운 담화기능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국어 구어 말뭉치를 통해 수집된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단순히 '진실'을 표현하는 어휘에서 '강조'와 같은 새로운 담화·화용적 기능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문법화 과정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표2에 따르면 5가지 유형의 '진실' 담화표지가 5가지 담화기능으로 전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문장 내 이동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연구에 사용된 용례가 250개 밖에 되지 않아서 ‘놀람’이나 ‘인정’ 등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진실’ 담화표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각 유형의 담화표지가 실제 담화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는 보다 많은 용례를 수집하여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표2에 제시된 5가지 유형의 담화표지가 가지는 담화기능상의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실’ 담화표지가 주로 ‘강조’나 ‘주의집중’의 담화기능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진실’ 표현 어휘들이 가지는 5가지 담화기능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 1) ‘강조’의 기능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분석된 총 250개의 ‘진실’ 담화표지 용례들의 담화·화용적 기능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진실’ 담화표지가 ‘강조’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이는 5가지 종류의 ‘진실’ 담화표지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강조’의 담화·화용적 기능을 가지는 ‘진실’ 담화표지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였는데, 하나는 주로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사용되어 문장 전체의 명제 의미를 강조하는 담화·화용적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 중간에, 특히 수식하는 어휘 바로 앞에 위치하여 뒤에 나오는 표현의 명제 의미를 강조하는 담화·화용적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 (8) 별거숭이 된 내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나는 아무 것도 없고, 다 벗어야 되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아주 역설적으로, 내가 한국인임을 벗어 날 수 없다는 겁니다.
- (9) 춘만이는 또 어쩐다고 나서서 그 야단이지, 나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 (10) **진말** 그 곳은 나의성당이었고, 미사였다.

예문 (8)에 사용된 담화표지 ‘사실’은 바로 직전에 나온 문장의 명제 의미

를 반박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동시에 바로 뒤에 나오는 절의 명제, 즉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담화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 위치한 발화의 명제를 부정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동시에 뒤에 나올 발화의 명제를 인정 또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앞 뒤 문장의 명제 의미가 대비되어 담화표지 뒤에 나타나는 내용이 강조가 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실' 담화표지는 원래의 단순한 진리조건의 판단이 가능한 '진실'을 기술하는 기능이 아니라 명제 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문법 기능을 가지게 되어 문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문 (9)에 사용된 담화표지 '참말로'도 비슷한 경우이다. 즉, '참말로' 앞 뒤 문장의 명제 내용을 대비시켜 뒤에 나오는 문장의 명제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다. 예문 (10)에 사용된 담화표지 '정말'도 문장 시작 부분에 나타나 이전 발화의 내용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동시에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의 명제를 강조하는 담화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을 도표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1)

'진실' 표현 기능의 명사/부사 > 전, 후 발화의 명제 내용 대비 > '강조' 기능의 담화표지

위 도표가 보여주듯이, '진실' 표현 어휘는 원래 참과 거짓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나타내는 기능으로만 사용되었는데, '참말로'와 같은 '진실' 표현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참말로' 앞, 뒤에 사용된 문장의 내용이 서로 대비가 되고, 이러한 명제 내용의 대비를 통해 '참말로' 뒤에 나오는 문장의 명제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즉, '진실' 표현 전후 발화 내용의 대비를 통해 '강조'라는 새로운 담화기능이 생기게 된 것이다.

## 2) '주의집중' 기능

'진실' 표현 어휘는 위에 설명한 '강조'의 담화표지 기능 이외에도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주의집중’의 담화표지 기능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데, 다음은 ‘진실’ 표현 어휘가 ‘주의집중’ 기능의 담화표지로 사용된 경우를 보여주는 예이다.

- (12) … 뭐랄까, 습관을, 몸에 그냥 익혔다구, **진짜, 솔직히** 보면은 주위에 그냥 낭비하는 사람 되게 많고…
- (13) 자녀를 보실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보시면, 아이들을 기르실 때, 관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 (14) 영호: 그래서, 그래서 실험실에 남자들이 그렇게 없나?  
민수: 그렇지.  
영호: **정말**, 이런 연구소 있잖아. 그니까 대기업 회사 그런 데는, 남자가 많을 것 같아. 여자 잘 안 뽑히니까.
- (15) **진짜**, 애를 만나고 있으면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애.

위 예문 (12)와 (13)에서는 ‘진실’ 표현 어휘 전후의 발화 내용이 서로 대비되어 뒤에 나올 발화에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켜주는 기능으로 ‘진실’ 담화표지가 사용되었다. 반면 예문 (14)와 (15)에서는 ‘진실’ 표현 어휘 전후 발화에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명제 내용의 대비는 없어 보이지만, ‘진실’ 표현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발화 내용에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켜주는 담화·화용적 기능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예문 (12)에서 주목할 것은 ‘진짜’와 ‘솔직히’ 두 종류의 ‘진실’ 표현 어휘가 동시에 사용되어 ‘주의집중’의 담화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 가지 담화기능, 즉 강조의 담화기능에 하나의 ‘진실’ 표현 어휘만이 사용되지 않고, 담화기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진실’ 표현들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 3) ‘주저함’을 나타내는 기능

‘진실’ 표현 어휘는 주로 ‘강조’와 ‘주의집중’의 담화기능으로 사용되지만, 청자의 체면(face)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화자의 대화전략

(conversational strategy)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sup>11)</sup> 다음은 ‘진실’ 표현 어휘가 ‘주저함’을 표시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된 예이다.

(16) 글썩요 별루 근데, **사실요** 제가, 정치라 그러면 되게 좀 애매한 게...

(17) 영호: 그렇게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해서 한, 한 이년, 삼년 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길호: **사실은 말이죠** 아직 이게 참, 그, 장원 사무총장이, 우리 대학원에 와 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18) ... 거의 다 했구요. 마무리 저야 되는데, 음, 그거 **실은**, 우리가 여섯 명인데 둘이서 다 했고, 응...

(19) 내가 막, 정 돈이 없으면 뭐, 머리카락 길러 가지고 머리 짧아서라도 시계줄 하나 사줘야지 뭐, 별 수 있나? 음, 음, **솔직히**, 음, 우리 주위에 이제 사촌 형들도 결혼하고 그래서 그걸 보지만...

위 예문 (16)에 사용된 ‘사실요’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말하기 꺼려질 때, 또는 이전 발화 내용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을 반박하고 사실을 확인시켜 주거나 화자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화자가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화자는 대화전략의 하나로 ‘주저함’의 담화기능을 하는 ‘진실’ 담화표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위 예문 (17)-(19)에 각각 사용된 ‘진실’ 표현 어휘들도 원래의 기능인 사실 여부의 확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발화 내용에 대한 ‘주저함’을 나타내기 위한 화자의 대화전략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진실’ 표현 기능의 명사/부사 > 보편적 믿음과 화자의 믿음 대비 > ‘주저함’ 표시 기능의 담화표지

11) 체면(face)에는 상대방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결정을 방해하는 부정적 체면(negative face)과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것에 해당하는 긍정적 체면(positive face)이 있다(Mey 1994 참조).

즉, 보편적 믿음 또는 청자가 알고 있는 것과 화자의 믿음 또는 지식이 확연하게 대비가 되어, 화자가 청자의 체면, 특히 긍정적 체면(positive face)이 위협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화자는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거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감 장치(mitigation device)를 사용하게 되는데, 위 예문에서는 ‘진실’ 표현 어휘가 경감 장치로 사용되어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주저함을 표시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

#### 4) 화자의 ‘놀람’ 표시 기능

‘진실’ 담화표지는 직전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놀람’을 표현하는 기능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아래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21) 철수: 지금 구하는 데 많아. 골뱅이도 구하고 다 구하더라, 지금.  
영희: **정말요?**  
철수: 반가루는 그거보다는 반찬같은 것 셀프잖아. 그니까 반가루가 딱 좋을 것 같애.
- (22) 학원 등록하러 갔을 때 부모님이랑 온 사람은 처음 봤어, **솔직히**.  
보통가면 다 혼자 오거든.

예문 (21)에 사용된 ‘진실’ 표현 어휘 ‘정말요’는 앞에 나온 발화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원래의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고, 직전 발화 내용, 즉 철수의 발화 내용은 영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철수의 발화에 대한 영희의 놀람을 표시하는 담화·화용적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문 (22)에서는 ‘진실’ 표현 어휘 ‘솔직히’가 문장 끝에 사용되었는데, 앞선 발화의 내용이 화자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 이에 대한 화자의 놀람을 나타내는 담화·화용적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실’ 표현 어휘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아니라 직전 발화에 대한 화자의 놀람을 나타내는 담화기능으로 사용된 주된 이유는 직전 발화의 내용과 화자의 믿음이 대비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직전 발화

의 내용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 적어도 화자에게는 생소하거나 화자의 평소 믿음에 대비되어, 이러한 차이에 대한 화자의 놀람을 표시하는 담화-화용적 기능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보인다. '진실' 표현 어휘가 '놀람'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로 사용되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23)

'진실' 표현 기능의 명사/부사 > 직전 발화의 내용과 화자의 믿음 대비 > '놀람' 표시 담화표지

위에 제시한 도표는 '진실' 표현 어휘가 '놀람'을 나타내는 담화기능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제시한 표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말'과 '진짜'의 형태로 나타나는 '진실' 표현 어휘와는 달리 '사실', '솔직', 그리고 '참'의 형태의 '진실' 표현 어휘가 발화에 대한 화자의 '놀람'을 나타내는 담화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sup>12)</sup> 즉,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진실' 표현 어휘가 담화표지로서 모두 다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sup>13)</sup>

### 5) 화자의 '인정함' 표시 기능

'진실' 표현 어휘들은 위에 소개한 4가지 담화기능 이외에도 '인정함(admittance)'의 기능, 즉 화자의 잘못이나 화자가 생각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반대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담화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은 '진실' 표현 어휘가 '인

12) 본 연구에 사용된 구어 말뭉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3종류의 '진실' 담화표지도 '네 말이 사실이야?'와 같이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놀람'이 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13) 5가지 형태의 '진실' 표현 어휘들이 서로 전혀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분류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형태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형태적 차이에 의한 분류가 기능의 차이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 담화기능으로 사용된 경우를 보여주는 예이다.

(24) 일학년 마칠 때까지, 그 때까지는 **솔직히** 내가 나를 되돌아 봐도, 거의 뭐, 가치관이라던가, 그런 거 없이...

위 예문 (24)에서는 '진실' 표현 어휘 '솔직히'가 원래의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한 명제 의미와는 상관없이 화자가 자신의 과거의 행동, 즉 대학 1학년을 마치기 전까지 화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기능의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 '진실' 담화표지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다음 발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화자가 '진실'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화자의 의도된 대화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표2에 제시하였듯이 '진실' 표현 어휘가 '인정함'의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것은 대화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6. '진실' 표현 어휘의 문법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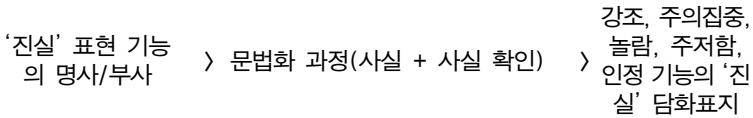
한국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유독 '진실' 표현 어휘들이 '강조'나 '주의집중'과 같은 담화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rice(1975)의 협력원리, 특히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에 따르면 청자는 화자가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여 말을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굳이 화자의 발화가 거짓이 아님을 일부러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화자가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거듭하여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화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실' + '사실 확인' = '강조'라는 일종의 공식에 의해 '진실' 표현 어휘가 '강조'와 같은 담화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담화표지가 특정 단어를 수식하거나 강조하기 보다는 문장이

가지는 명제 의미를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실' 표현 어휘들이 '강조'나 '주의집중'의 담화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문법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원래는 명사나 부사의 문법기능으로만 사용되던 '진실' 표현 어휘들이 문법화 과정을 통해 화자가 의도한 대화전략을 위한 담화표지라는 새로운 문법기능으로 사용된 것이다.<sup>14)</sup> 본 연구에서는 '진실' 표현 어휘들이 앞서 제시한 5가지의 담화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사용하게 된 문법화 과정을 아래 도표에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21)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진실' 표현 어휘들은 원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의 명사나 부사로만 사용되던 것이 화자가 자신의 발화가 사실임을 재차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강조, 주의집중, 놀람, 주저함', 그리고 '인정' 등의 담화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라는 새로운 문법기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명사나 부사로만 사용되던 '진실' 표현 어휘들이 언제부터 '강조'나 '주의집중'과 같은 담화기능을 가지는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는지는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진실' 표현

14) '진실' 표현 어휘들은 크게 명사와 부사의 범주로 분류된다(임규홍 1998). 명사의 형태를 취하는 '진실' 표현 어휘들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담화표지의 기능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반면, 부사의 형태를 취하는 '진실' 표현 어휘들은 '참'과 '거짓'의 명제 의미로 사용된 어휘적 기능과 원래의 명제 의미가 아닌 화자의 특정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진실' 표현 어휘들이 전부 다 이러한 문법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각 표현들이 겪은 문법화 과정도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어휘들 중에서 일부 표현들만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반면에 일부는 담화표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진실’ 표현 어휘들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원래의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은 ‘진실’ 표현 어휘들이 ‘강조’나 ‘주의집중’을 나타내는 담화표지, 즉 새로운 문법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문법화의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 구어 말뭉치에 자주 나타나는 ‘진실’ 표현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문법화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 표현 어휘들이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주로 문장이 시작되는 곳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진실’ 표현 어휘가 문장 시작 부분에 사용되었을 때 담화와 담화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강조의 기능도 가지는 반면에, 문장 중간에 사용되었을 때는 강조의 효과가 다소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둘째,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진실’ 표현 어휘들을 문장 내에서 이동시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위치에 있어 제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절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났지만, 절의 중간이나 끝에는 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진실’ 표현 어휘는 여러 가지 담화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강조’의 기능을 가지는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 넷째, ‘진실’ 표현 어휘가 모두 다 담화표지라는 새로운 문법기능을 하는 문법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고, 또 각각의 ‘진실’ 담화표지가 가지는 담화기능별 빈도수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문법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진실’ 표현 어휘들의 담화기능은 때로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두 가지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다. 이처럼 ‘진실’ 표현 어휘의 담화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진실’ 표현 어휘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과 쓰임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분하

기 위해서는 '진실' 표현 어휘가 가지는 담화기능과 담화표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와 판별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frankly, honestly, to be honest' 등과 같이 다양한 '진실' 표현 어휘들이 '강조'와 같은 담화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어 '진실' 담화표지와는 쓰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말뭉치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어 '진실' 담화표지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어 '진실' 담화표지와 영어 '진실' 담화표지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 화자의 대화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고찰해 보는 것은 흥미롭고 가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 ❖ 참 고 문 헌

- 강우원. 「담화표지 '참'과 어찌말 '참'의 비교연구」. 『언어과학』 1권. 5-26. 2000.
- 김영철. 「우리말 담화표지 '참' 고찰」. 『국어문학』 43권. 235-252. 2007.
- 김향화.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집 113-140.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04.
- 이한규.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3권. 1-26. 1996.
- 임규홍.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권. 1-20. 1996.
- \_\_\_\_\_. 「부사 '정말'류의 담화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2권. 237-254. 1998.
- 전영옥.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역락. 2002.
- Grice, H. Paul.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by P. Cole and J. Morgan, 41-58. NY: Academic Press. 1975.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 Traugott. *Grammaticalization*, 2nd edition. Cambridge, UK &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Kim, T. *Negation in Korean: its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process*.

Language Research. 24:4, p.685-705. 2009.

Mey, Jacob L. *Pragma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MA: Blackwell. 1994.

Schiffrin, Deborah. *Discourse Marker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참고자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 계획.

서울대학교. 꼬꼬마 세종말뭉치. <http://kkma.snu.ac.kr>.

❖ ABSTRACT

## A Corpus-based Study of the Truth-related Words in Korean Used as Discourse Markers

Kim, Taeho & Jeong, Seon-yeo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truth-related words in Korean, which were originally noun or adverb with 'truth' related meaning, can be used as discourse markers with the functions such as 'emphatic marker', 'attention getter', or 'hesitation marker', and it argues that such functions of the discourse markers are the result of grammaticalization process. That is to say that the truth-related words have acquired new functions as discourse markers from their corresponding lexical items as a noun or an adverb through grammaticalization process. In this study, we demonstrate that the truth-related words tend to appear sentence-initially or sentence-medially when they are used as discourse markers. We also show that they are most likely to be used as emphatic marker because of the lexical meaning of the truth-related words. Finally, we state that truth-related words differ from one another in where they appear and what function they are used with.

---

### Key Words

코퍼스, 문법화, 진실 표현 어휘, 담화표지, 강조 기능, 주의집중 기능, 주저함 기능  
corpus, discourse marker, emphatic marker, grammaticalization, truth-related words

논문접수일: 2012. 11. 10.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